

AAAS 연례대회 참관기

과학계의 올림픽 ‘AAAS 2008’

“글로벌 전망으로 보는 과학과 기술”

글 | 최연구 _ 한국과학문화재단 홍보실장 choiyg@ksf.or.kr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연례대회는 미국의 저력이 과학기술로부터 나옴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행사였다. 연례회의로 벌써 174번째라는 데서부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규모와 이슈의 방대함에 감탄사를 연발해야 했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1848년 펜실베이니아에서 만들어져 그간 미국과학기술진흥을 이끌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 협회이다. 소속기관이 300여 개, 회원수는 무려 14만 명에 달한다. 과학자 간의 협력 진흥과 과학연구의 자유 옹호에 크게 기여해 왔고, 과학교육과 과학커뮤니케이션, 과학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온 조직으로서 역사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AAS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AAAS 연례대회는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연례행사지만, 오늘날에는 미국과학계의 행사를 넘어 세계의 과학자와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 및 과학문화의 현황과 이슈를 토론하고, 인류와 과학의 미래전망을 함께 그려 나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다보스 포럼 같은 국제 컨퍼런스나 전문심포지엄과 함께 강연, 과학전시, 홍보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참가자에게 볼거리, 들을 거리, 생각할 거리를 듬뿍 선사해 준다.

미국의 저력 실감케 한 최대규모 과학행사

매년 2월에 전국을 돌며 대회가 열리는데, 2008년 대회는 매사추세츠주의 주도(州都)이자 세계의 허브라 불리는 대학도시 보스턴에서 열렸다. 보스턴은 하버드 대학, MIT 공대 등 명문학교가 위치

해 있는 곳으로 그밖에도 100여 개에 이르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 지식의 메카이자 과학연구의 본산이라 할 만한 곳이다.

유료등록인도도 불구하고 6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고, 리포터, 기자, 프리랜스, 편집인 등 취재언론인만 약 1천100명이 모였다. 또한 홍보부스 100여 개에 156개의 심포지엄 등 행사관련 수치만 보더라도 가히 대회의 규모와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AAAS 연례대회가 ‘과학 컨퍼런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08년 대회의 주제는 ‘글로벌 전망으로 보는 과학과 기술’이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AAAS의 회장인 데이비드 볼티모어 교수가 정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는 현실에 비추



기조강연을 하는 볼티모어 박사



강연을 듣는 참석자들

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가 3천300만 명에 이르고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5세 이하 어린이 중 2천200만 명이 비만으로 고통 받는 지구적 현실에서 과학기술국제협력력을 통한 지구적 대응은 시급한 숙제이다. 대회의 테마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는 기초강연과 심포지엄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건강, 해양생태계, 비만, 선거이슈로서의 과학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는 평평하다

14일 저녁 매리어트 호텔 볼룸에서 열린 개막 강연에서는 회장인 데이비드 볼티모어와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미의 기초강연이 행사의 품격을 높여주었다. 볼티모어는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토커스 프리드먼의 최신 저작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과학에 있어서도 평평한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해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재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생물학과에 재직 중인 세계적 생명과학자 볼티모어 박사는 1975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석학으로 에이즈바이러스와 백신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6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볼티모어가 언급한 책 '세계는 평평하다'는 2005년 4월 미국에서 출간되어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프리드먼의 역작이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이자 국제문제평론가인 프리드먼은 풀리처상을 수상했고, 전세계 27개 국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이미 세계화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볼티모어 박사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수평적인 평평한 세계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경이 없는 과학분야에서는 세계화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힘과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 선진국은 저개발국을 지원해야 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과학파트너십을 증진해 지식기반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문발전을 위해서는 '우수성에 대한 요구', '자원의 집중', '작은 환경의 창조', '교수와 연구의 통합 유지'가 절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학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회장인 MIT의 수석 흑필드 총장은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사로 나선 르완다의 폴 카가미 대통령은 전쟁과 학살, 기아로 점철된 르완다를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재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주옥같은 기초강연은 매일 저녁 계속되었는데, 15일에는 록펠러재단 회장인 주디스 로맹이, 16일에는 미국무부 장관의 과학자문관 니나 페드로프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가 각각 연사로 나서 과학기술의 국제협력과 세계화를 통해 더 나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강연을 했다. 17일 저녁에는 MIT 미디어랩의 창시자이자 디지털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윈 랩탑 퍼 차일드'라는 제목의 명연설로 청중을 감화시켰다. 네그로폰테는 '어린이마다 한 대의 노트북을'이라는 목표 아래 초저가 PC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통신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보스턴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하인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160여 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기후변화와 환경,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생태학과 자원관리, 교육과 노동력, 음식보호와 공 급, 에너지의 미래, 글로벌 건강, 인류발전과 이해, 개발도상국의 기회, 네트워크 세계, 수평선의 과학과 엔지니어링, 과학기술과 공 공정책, 과학적 기업, 국제과학협력전략, 건강한 미래를 위한 테크 놀로지, 지구안보와 안정 등 열여섯 가지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세 선별 심포지엄이 개최됐고, 주제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해양생태 계, 공공교육자로서의 박사, 비만과 아동영양의 이해 등의 테마로 특별세션도 열려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수학습 시 글로벌 언어는 파워포인트

워낙 다루는 주제가 방대하고 세션도 많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녀도 전체일정의 극히 일부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였다. 몇 가지 흥미로웠던 세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AAS의 전임회장인 길버트 오멘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션에서는 ‘슈퍼코스 : 네트워킹과 과학교육을 쉽게 해주는 인터넷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피츠 버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슈퍼코스(www.pitt.edu/~super1)는 무료 로 26개 국어로 된 3천385개의 파워포인트 과학강연 자료를 제 공하고 있는데, 전 세계 171개국 4만3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정보공유의 힘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발제를 한 피츠버그대 로널드 라포르트 교수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글로벌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파워포인트라고 강조하며 과학자들이 우수한 강연 자료를

공유한다면 과학교육과 네트워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이라 강조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미국환경보호국(EPA)의 참여로 이루어 진 ‘학제연구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정책결정’ 세션에서는 연 구개발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나 경쟁력과 연계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브리짓 드 부아종은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유럽의 공동 연구개발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연계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환경보호국의 윌리엄 존타그도 공해제어에 서 공해예방으로, 공해예방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정책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세션에서는 토론을 통해 ‘사회가 좋은 정책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학기술의 또 다른 역할’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시홀에서는 미국과학재단(NSF),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미국 국립과학디지털라이브러리(NSDL), 유럽연합집행위 원회 등 기관들과 과학출판사, 과학박물관, 연구소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과학문화 재단이 한국과학관련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홍보부스를 열어 한국 과학문화의 성과와 현황을 국제적 과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알려 눈 길을 끌었다. 과학문화재단 부스에서는 최근 재단이 개발한 3D 과 학실험 동영상 영문버전을 상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과학을 진흥시켜 사회에 기여한다

AAAS 연례대회와 동시행사로 열린 AAAS 사이언스 데이 행사



강연하는 니콜러스 네그로폰테



전시홀의 홍보부스



각국의 홍보부스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싱가포르, 유럽연구소, 대한민국의 한국과학문화재단, 캐나다)



는 일반인을 위한 퍼블릭 사이언스 데이 행사와 가족을 위한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전시로 나눠 진행됐다. 퍼블릭 사이언스 데이는 20여 년 간 AAAS 연례대회의 부속행사로 개최돼 왔는데, 보통 개최지역에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보스턴 대회에서는 노스이스턴 대학, 매사추세츠 대학(보스턴),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터프츠 대학 등 5개 대학이 참여해 각각 지진, 환경연구, 나노테크놀로지, 물리학, 로보틱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전시에는 하버드대 자연사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NASA, 사이언스 매거진, 미국 식물학회 등이 참가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YOMEGA라는 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요를 갖고 요요의 원리와 함께 요요 스킬 향상법을 재미있게 가르쳐주어 큰 인기를 누렸다.

‘과학을 진흥시켜 사회에 기여한다!’ 이것이 바로 AAAS의 모토

이다. 과학진흥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미국과학진흥협회의 목표는 AAAS 연례대회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분야 간의 협력을 통해 과학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 속의 과학을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 과학진흥이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이다. ⁵¹⁾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프랑스 마르느 라 발레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대우전임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2월호 포커스 ‘암 정복, 생명연장의 꿈 실현한다’(32p) 기사 중 첫 번째 문단의 ‘... 2002년 1만1천 명에서 2020년 1만7천 명, 2050년 2만7천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는 ‘... 2002년 1천100만명에서 2020년 1천700만 명, 2050년 2천700만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할 것으로...’의 오타이기에 바로잡습니다.